

코로나19 학력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 ▮ 2021. 6. 16.(수) 14:00

▮장소▮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

▮주최▮ 대전광역시의회

▮주관▮ 교육위원회



프로그램

¬ н	시 긴	ŀ		TI -U
구 분	진행	소요	내 용	진 행
등록	13:30 ~ 14:00	30분	○참석자 등록	
개회식	14:00 ~ 14:10	10분	○개 회 ○인사말 및 내빈소개	김현중 (입법정책실장)
			- 구본환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주제 발표	14:10 ~ 14:30	20분	○ 주제발표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인" - 신소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토론	14:30 ~ 15:40	70분	 지정토론 (가나다순) ■ 고유빈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김종남 / 대전YMCA 사무총장 ■ 최미자 / 대전둔산초등학교 교감 ■ 최애리 / 학부모 	구본환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질의 응답	15:40 ~ 16:00	20분	○ 토론결과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폐회	16:00	_	폐회	

목 차

□ 주제	발표
------	----

 □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1 - 신소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지정 토론
○ 토론자료 1 ···································
○ 토론자료 2
○ 토론자료 3
○ 토론자료 4 ···································

<u>주제발표</u>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신 소 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2	-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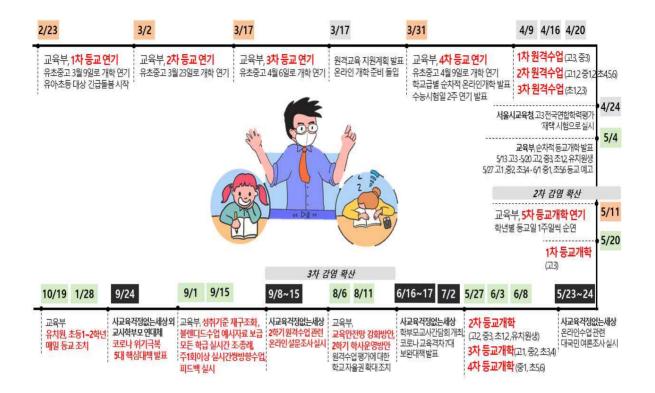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신 소 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I. 들어가며

2020년 4월, 전국 초중고생 540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당시만 해도 원격수업은 안전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자, 법령상 필요한 수업일수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였다. 감염세가 안정되고 금방 정상등교 국면을 준비하는 단계였기에 원격수업의 내실보다는 임시적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등교수업이 시작되기를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염세가 점점 확산되면서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의 대체재로 도입되면서, 원격수업을 되게 하기 위한 기기와 장비, 접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기도 있고 접속에도 문제가 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원격수업을 도울 수 있는시간과 역량은 가정마다 차이가 컸다. 원격수업이 '되는' 것을 넘어'잘'되고는 있는지 질 문제와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조짐 속에 원격수업이 이대로 괜찮은지, 가뜩이나심했던 교육격차가 조용히 더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데이브 마르코트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학생들은 학기 중에 얻은 성취의 25%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 또한마르코트 교수가 폭설로 인한 장기휴교 시 3,5,8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조사(2007)한 결과, 학교 폐쇄 영향은 가장 어린 아이들이며,학교가 하루 문을 닫을 때마다 읽기와 수학에서 기대 성적에 못 미치는아이들이 약 0.57%씩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교육이중단된 기간이 무척 짧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지속적일 수 있음을 말한다.현재의 위기로 필요한 배움의 기회가 유예되거나 소실되는 단기적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휴교는 이미 배운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퇴보를진행시키는데 학습 내용의 위계 구조상 이는 바로잡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방학은 기존 방학보다도 배움을유지시키는 데 악조건이다. 일반적인 방학 때 제공받던 지역사회의박물관, 도서관, 캠프 등 외부 활동을 통한 지적 양분의 공급 기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규칙적으로 단련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던 학교의 역할이 코로나로 축소되면서 가정 배경이 학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작년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예견되었던 교육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 교육격차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연이어 쏟아져나왔다.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로 교육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결과가 언론을 통해 여럿 보도되었고, 6월 수능모의고사 3개년도 국영수 원점수 분석결과에서도 상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나고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학력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여론은 교육격차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8세 미만 1,000명 대상 설문조사, 5.23.~5.24.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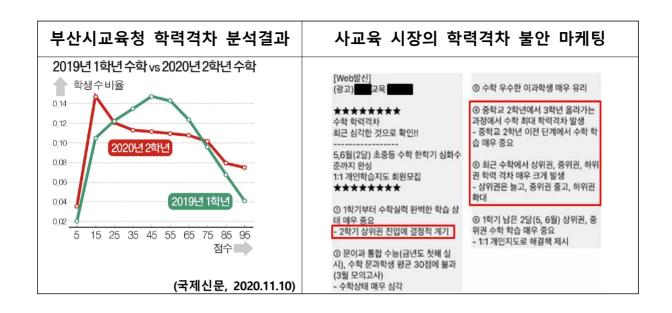


이에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 세부지원(8.6), 교육안전망 강화(8.11), 원격수업 질 제고(9.15)'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의 질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거셌다. 여론의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이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던 학교의 역할이 희미해진다면, 감염병이 종식되더라도 학교 현장은 회복될 수 없는 교육격차의 상흔을 안고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대면하기 전에 여론이 전하는 학교 현장의 실상을 겸허히 마주하기 위해, 교육격차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특단의 대책이 진즉 필요했다. 여론의 불안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를 입증시키든, 그게 아니더라도 불안을 겸허히 공감하되, 어디에서 얼마나 격차가 생겼는지 근원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그에 입각해서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여론의 우려가 현실인지, 코로나로 교육격차는 정말 커졌는지, 어느 학년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인지 등 격차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진단의 노력부터 부실했다. 그나마 부산시교육청이 작년 11월 도내 일반계고 24개교를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표본조사와, 서울교육정보연구원이 관내 중학교 382개교 데이터 분석, 인천교육청이지난 3월 관내 중고교 학업성취도 변화 분석 등 단 3개 지역만이 실증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증조사는 전무한 상황에서 격차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 불안은 무성히 커져만 갔고, 시도교육청별 각종 교육격차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진단 없이 나온 처방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현장에서 눈에 띄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과제는 단위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져 갔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력격차가 심각하다며 코로나를 토대로 한 불안 마케팅을 판매 전략으로 앞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의 교육격차 진단만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세간의 우려처럼 작년 한해 학력 양극화가 정말로 심화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코로나 학력 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에 대한 기존의 의식조사를 전국단위의 대규모 데이터로 표본조사한 최초의 자료이다.

II. 2020년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

1. 학력격차의 정의

학력격차란 교육격차를 미시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의 격차,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격차보다도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 특히 학업성취 격차에 주목한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학력'을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격차(隔差)'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격차'는 유사어인 차이(差異)와 분명히 다른 어감을 준다. 차이가 단순히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 가치 중립적 용어라면, 격차는 서로 다른 정도가 뜨고 벌어져서 상호 간에 막히고 가려질 만큼 실제로 차이가 크다는 부정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격차'는 자신이나 타인 또는 집단 등 비교 대상의 존재를 통해 체감된다는 점에서 상대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다. 종합해보면 '학력격차'는 교육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다른 학생이나 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 지게 된 문제적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라 하겠다.

2. 코로나 학력격차 양상

학력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엄연히 존재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학력격차 인식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상대적 비교 대상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학력격차가 이전보다 심해졌다는 응답이 다수 나타날 만큼 학력격차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격차가 실재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격차의 비교 대상이 가시권 에서 멀어지면서 교육 주체들의 인식적 불안을 야기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학기제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적 결손을 더욱 가중시켰다. 가을학기제 국가의 학생들은 신학년에 적응감이나 소속감을 어느 정도 형성한 이후 학년도 중반부에 코로나를 맞이했던 반면, 신학년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코로나를 맞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애초부터 소속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고 1학년의 경우 배움의 과정에서 기반이되는 학교에 대한 신뢰나 학교문화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움을 시작해야 했다. 새로운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의 신체적·정서적 관계맺음도 적응도 되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부터 해야했기 때문에 다른 학년들에 비해 학력격차 발생에 취약했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YTN과 함께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2020년 한해 동안 전국 8개 시도 내 중·고등학교들의 2020학년도 1학기 국영수 평가 결과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학력 양극화가 실제로 심화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 중학교에서는 중위권이 줄고 상·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난 '학력 양극화', 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대폭 늘어난 '학력 저하' 현상이 입증되었다.

조사 (1) 조사(2)

- ○(자료 출처)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학교정보공시 학업성취도 자료 ○(참고 사항)
 - 학업성취도는 각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과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된 학기말 총괄평가 성적 결과 (A~E등급)를 의미함
 - ※ 중학교는 등급별 분할점수가 고정 90점 이상(A), 80점 이상 90점 미만(B), 70점 이상 80점 미만(C), 60점 이상 70점 미만(D), 60점 미만(E)
 - ※ 고등학교는 단위학교마다 등급별 분할점수가 고정 또는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음.
 - 표준화시험이 아닌 학교별 평가 결과로, 개별학교 내 연도별 동일시기의 학업성취도(등급) 변화 양상을 분석함.
 - 연도별로 학년 진급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특정 학년의 성취도 양상으로 표본 학생이 연도별로 상이함.
- (대상 기간) 최근 4개년도 공시된 6개 학기 (2017학년도 2학기, 2018학년도 1,2학기, 2019학년도 1,2학기, 2020학년도 1학기)
- ○(대상 학년/과목)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수학
- · (표본 지역) 전국 8개 시도에서 선별한 구·군 내 중·고등학교
 - ※ 세부 구·군 명칭은 미공개. 서울은 중학교에 한해 전수조사
 - ※ 표본 지역 내 학교는 모두 포함. 단, 학업성취도 미인력 학교는 제인
- ○(대상 기간) 2019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1학기
- ○(대상 학년/과목)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학년/국어·영어·수학
- ○(표본 지역) 전국 8개 시도에서 선별한 구·군 내 중·고등학교
 - ※ 세부 구·군 명칭은 미공개
 - ※ 표본 지역 내 학교는 모두 포함. 단, 학업성취도 미입력 학교는 제외

	미급력 역표는 제조	l						
	중학교		고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 울	서울 전체(25개 자치구)		5개 구		서 울	5개구		
경 기	7개 시·군				경 기	7개 시·군		
강 원	3개 시·군	851개 교		408개교	강 원	3개 시·군	560개교	413개교
광 주	3개구	(전국		(전국 고등학	광 주	3개구	(전국 조하고의	(전국
대 구	3개 시·군	중학교 의	좌동	교의 17%)	대 구	3개 시·군	중학교의 17%)	고등학교의 17%)
· 부 산	5개구	26%)		1770)	부 산	5개구		
전 북 충 남	2개 시·군				전 북	2개 시·군		
충 남	3개 시·군				충 남	3개 시·군		

(1) 중학교 75.9%, 고등학교 66.1%에서 수학 중위권 감소, 상하위권 증가해 학력양극화 심화

수학 과목에 한해 전국 8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 내 중고교 1259개교의 6개 학기(2018학년도 2학기~2020학년도 1학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위권(B,C,D등급) 감소, 상위권(A등급)과 하위권(E등급)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u>학력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u>되었다. 조사 대상 중학교 75.9%, 고등학교 66.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년도 동일시기(2019학년도 1학기) 대비 중위권 비율이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 감소는 2학기보다는 신학년 전환으로 인해 적응이 필요한 1학기에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평상시에도 중위권 비율은 2학기로 가면서 높아졌다. 코로나19 여파가 작용한 2020년 1학기 데이터에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위권이 감소한 학교는 중학교가 438개교에서 646개교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했고, 고교는 220개교에서 270개교로 22%가 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최근 3년 간 전국 중고교 <수학 중위권 감소 학교> 비율

중위권(E	B,C,D등급)		고1	전국			중2	전국	
ġ	박기	2018-2 18.2-1 7.2	2019-1 19.1-1 8.1	2019-2 19.2-1 8.2	2020-1 20.1-1 9.1	2018-2 18.2-1 7.2	2019-1 19.1-1 8.1	2019-2 19.2-1 8.2	2020-1 20.1-1 9.1
중위권이	해당학교 개 수	199개 교	220개 교	177개 교	270개 교	440개 교	438개 교	403개 교	646개 교
감소한 학교 개수 (<0)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48.7%	53.9%	43.3%	66.1 %	51.7%	51.4%	47.3%	75.9 %

⁻ 표본지역 내 각 학교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 성취도 전체 학생(A~E) 대비 중위권 성적(B,C,D등급) 비율 합산

한편, 상위권(A등급)의 경우 고교에서는 전년보다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학교는 조사 대상 중학교의 66.2%에서 전년보다 상위권 증가세가 커졌다. 또한 하위권(E등급)도 조사 대상 중학교의 56.9%, 조사 대상 고등학교의 66.4%에서 전년보다 하위권 증가세가 커졌다. 물론 연도별로

⁻ 각 학교별로 2017년 2학기~2020년 1학기 학기별 전년도 동일시기 대비 중위권생 증감 산출 (ex. 2020.1학기 B,C,D비율합

^{- 2019.1}학기 B,C,D비율합)

⁻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B,C,D비율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학교 개수의 비율 산출

응시한 학생의 표본이 다르고 출제 난이도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겠으나, 최근 3년 간 성취도 분포비율의 변동 추이상 중위권 감소와 상·하위권 증가는 학력격차의 현실화를 의심할 수 있는단서이다.

최근 3년 간 전국 중고교 <수학 상·하위권 증가 학교> 비율

상위권	(A등급)		고1	전국			중2	전국	
	1 -1	2018-2	2019-1	2019-2	2020-1	2018-2	2019-1	2019-2	2020-1
2	∤기	18.2-1 7.2	19.1-1 8.1	19.2-1 8.2	20.1-1 9.1	18.2-1 7.2	19.1-1 8.1	19.2-1 8.2	20.1-1 9.1
	해당학교 개	208개	194개	173개	195개	409개	488개	487개	564개
	수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상위권 증 가학교(>0)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50.9%	47.5%	42.4%	47.7%	48%	57.3%	57.2%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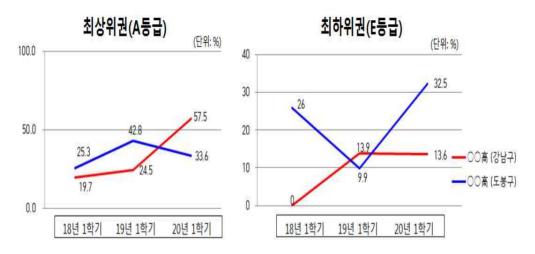
!(E등급)		고1	전국			중2	전국	
	2018-2	2019-1	2019-2	2020-1	2018-2	2019-1	2019-2	2020-1
탁기	18.2-1	19.1-1	19.2-1	20.1-1	18.2-1	19.1-1	19.2-1	20.1-1
	7.2	8.1	8.2	9.1	7.2	8.1	8.2	9.1
해당학교 개	164개	199개	201개	271개	449개	359개	341개	485개
수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40.1%	48.7%	49.2%	66.4%	52.7%	42.1%	40%	56.9%
율								
	학기 해당학교 개 수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기 2018-2 18.2-1 7.2 해당학교 개 요 164개 교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2018-2 2019-1 18.2-1 19.1-1 7.2 8.1 199개	2018-2 2019-1 2019-2 18.2-1 19.1-1 19.2-1 7.2 8.1 8.2	2018-2 2019-1 2019-2 2020-1 18.2-1 19.1-1 19.2-1 20.1-1 8.2 9.1 164개 교 199개 교 201개 교 271개 교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40.1% 48.7% 49.2% 66.4%	2018-2 2019-1 2019-2 2020-1 2018-2 18.2-1 19.1-1 19.2-1 20.1-1 18.2-1 7.2 8.1 8.2 9.1 7.2 대당학교 개 수 164개 교 201개 교 271개 교 449개 교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2018-2 2019-1 2019-2 2020-1 2018-2 2019-1 18.2-1 19.1-1 19.2-1 20.1-1 18.2-1 19.1-1 7.2 8.1 8.2 9.1 7.2 8.1 해당학교 개 수 164개 교 199개 교 201개 교 271개 교 449개 교 359개 교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율	2018-2 2019-1 2019-2 2020-1 2018-2 2019-1 2019-2 18.2-1 19.1-1 19.2-1 20.1-1 18.2-1 19.1-1 19.2-1 7.2 8.1 8.2 9.1 7.2 8.1 8.2 359개 교 164개 교 199개 교 201개 교 271개 교 교 교 교 (조사대상 학교 대비) 해당학교 비 40.1% 48.7% 49.2% 66.4% 52.7% 42.1% 40%

⁻ 표본지역 내 각 학교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 성취도 전체 학생(A~E) 대비 A,E등급 성적 비율 각각 비교

또한 단위 학교들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소재 고교의 수학 성적을 동일시기 기준으로 각각 3년 간 추이 변동을 비교한 결과, 2020년 1학기에 강남구 소재모고교는 A등급이 급격히 늘고 E등급은 거의 변화가 없던 반면, 도봉구 소재모고교는 A등급이 줄고, E등급이 매우 급격히 늘었다. 재난은 모든 학교에 찾아왔지만,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어떤 지역에서는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크게 늘면서 학교교육의 빈자리를 혹독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편, 사교육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재난이 도리어기회가 되어 상위권이 늘어나고 있었다.

⁻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AE비율이 각각 전년도 동일시기과 대비하여 늘어난 학교 개수의 비율 산출

최근 3년 간 일부 고교 간 수학 A,E등급 학생비율 편차



(2) 조사한 모든 지역서 국영수 중위권 비율 감소, 중학교는 상하위권 동시증가 (학력양극화), 고교는 상위권 감소, 하위권 증가(학력저하)

전국 8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 중·고교(총 973개교)의 국·영·수 성적이 2019학년도 1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 비교한 결과, 중위권(B,C,D등급) 감소 및 상위권(A등급)·하위권(E등급) 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학력양극화가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학교들의 국영수학업성취도에서 중위권 비율은 전년 동일시기 대비 중학교는 5.8%p 감소, 고등학교 4.4%p 줄었다. 이러한 중위권 감소세는 조사 대상 8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충남)에서 모두 예외 없이, 중고등학교에서 공히 나타났다.

2019-2020년 국영수 중위권 학생 비율

중위권(BCD) 학생 비율								
학기 2019-1 2020-1								
중학교	49.3%	43.5% (↓5.8%p)						
고등학교	54.8%	50.4% (↓4.4%p)						
프리지어 내 가 쉬고 그어	선생 취임시키는 거리 되게 듯	내내 이 에비 조이기 되지						

⁻ 표본지역 내 각 학교 국영수 학업성취도 결과 전체 학생(A~E) 대비 중위권 성적 (B,C,D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학교급별 평균치로 산출

한편 전체 학생 중 과목별 A등급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는 2.3%p 늘어나 상위권이 늘어났지만, 고등학교는 1.3%p 줄어 상위권 감소했다. 반면 E등급 비율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증가세였다. 중학교 3.5%p, 고등학교 5.7%p 만큼 전년보다 E등급이 증가했다. 특히 E등급의 경우 일부 지역고교는 E등급 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로 2020년에 하위권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9-2020년 국영수 상·하위권 학생 비율

상:	위권(A) 학생	비율	하위권(E) 학생 비율						
학기	2019-1	2020-1		학기	2019-1	2020-1			
중학교	30 E0/	30.8% (↑	ろかつ		22.20/	25.7% (↑			
요심파	28.5%	2.3%p)	^{% (†} 중학교 ^{8%p)}	22.2%	3.5%p)				
고등학교	18.5%	17.2% (↓		고등학교	26.7%	32.4% (↑			
T-0=1TF	10.5 //	1.3%p)		T-0-1TF	20.7 /0	5.7%p)			
- 표본지역	- 표본지역 내 각 학교 국영수 학업성취도 결과 전체 학생(A~E) 대비 A.E.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각각 학교급별 평균치로 산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0년, 중학교에서는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나는 '학력 양극화' 현상을 보인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대폭 늘어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할 수 있다. 기존에도 학교 현장에 교육격차는 존재했지만, 작년 한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발생한 학습 손실이 가중되면서 평균적 학습 수준을 유지하던 중위권이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줄어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학습 수준이어려운데다, 코로나로 줄어든 등교수업을 감안하여 평가 난이도를 조정할수 있는 여지가 대입 준비의 영향 탓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고등학교에서는 일정 수준의 시험 난이도가 유지되면서 하위권이 특히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 시험이 아닌 학교별 평가이므로 학교별 평가 난이도나 표본이 상이한 점, 연도별 학년 진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학년으로 고정된 데이터이므로 연도별 표본이 상이한 점 등의 한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학력격차 양상을 예측하는 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제로 전국단위 표준화시험인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2021.6.2.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에 따른 일상적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표집 대상이었던 중3과 고2 모두 국영수 전과목에서 전년대비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늘었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줄었다. 중위권 감소와 하위권 증가를 우려할 만한 조사 결과이다.



3. 코로나 학력격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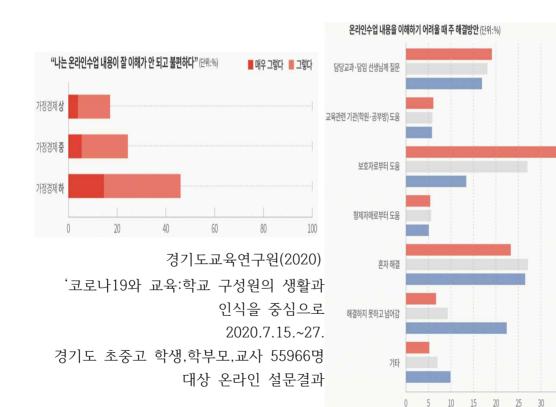
(1)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격차의 요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콜만 보고서(교육기회의 평등, 1966)이다. 4천여개 학교의 6,9학년 학생 6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연구 결과,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의 물리적환경이나 교사의 질 등 교육여건 차이가 아닌 '학생의 가정배경'과친구집단이었다. 또한 많은 뒤이은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나 지원수준이 높고,경제자본 외에도 자녀의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축소 되면서 학생의 학력에 부모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화되었다. 가정 환경과 무관하게 같은 시간,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던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로 가정 환경이 곧 수업 환경인 상황이 되었다. 집집마다 정보화 환경은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 어떤 학생들은 쾌적하고 조용한 개인 공부방에서 부모의 지원 속에 전용PC로 원격수업을 들으며 양질의 집밥을 먹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하루 벌이를 놓을 수 없는 부모의 출근 뒤 비좁은 집에서 낡은 기기를 가지고 형제자매 간에 수업들을 순서를 나눠 들었고 끼니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격수업 콘텐츠는 제공되었지만, 제공받는 환경은 너무도 달랐던 것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2020)이 수행한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원격수업 이해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가정경제 상마정경제 중

■ 가정경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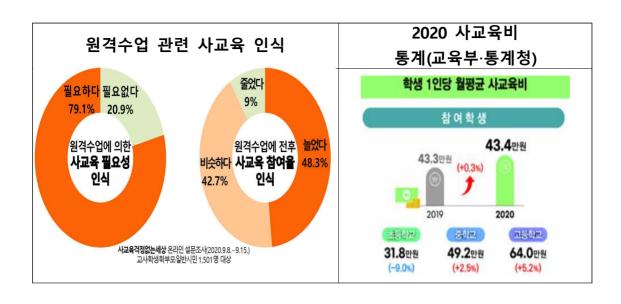


한편 고립과 방치, 학대에서 벗어날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원격수업은 학교에 비해 너무도 무력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수면패턴 속에 보호자가 오기만을 온종일 버텨야 하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범주는 더욱 넓어졌고, 불리한 정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전에 교육 소외계층이 다문화·편부모·조손·저소득층 가정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녀의 원격수업을 도와줄 물리적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도 자녀교육에 취약한 여건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부모의 학습적 도움이 여의치 않은 가정 여건은 코로나 중에도 사교육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주효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 사교육의 영향

난공불락의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학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학교등교가 제한적이었고, 학원 역시 이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상황에서 사교육 소비는 안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7.)이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을 묻자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은 학부모의 33%에 달했다. 또한 원격수업 전후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가 늘거나 비슷하다고 체감했다.

사교육 소비의 필요성과 참여율 체감에 대한 여론의 인식은 올해 3월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에서 상급학년 중심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초중학생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모두 전년대비 줄었지만, 고교생은 전년보다 도리어 늘었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결과만을 볼 때 중고생 모두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대비 늘었다. 이와 같은 의식조사 및 사교육 소비 데이터는 사교육이 코로나發 학력격차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3)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교육부와 KERIS가 5102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2020.7.29.~8.10)에서 교사 79%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고,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의 1순위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차이'(64.92%)를 지목했다. 즉, 교사들은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격차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격차의 요인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으로 보는 시각에서 귀속 요인의 해석은 유의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을 자습이나 혼공과 혼동할 경우, 자칫 학습격차 발생의 책임 주체를 학생 개인으로 보고 귀책 사유를 학생에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도학습은 교사나학부모, 동료의 도움 없이 오롯이 학생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공부가아니라, 오히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학습 자원의 도움을 동원하는 공부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고립된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교사나 학부모, 동료 등의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코로나 상황은 일정한 등교 시간에, 일제히 집합하여, 일정한 진도로수업을 듣던 평시 오프라인 학교에서의 규율과 제약들을 급작스럽게 온라인 공간에서 일제히 자율화시켰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은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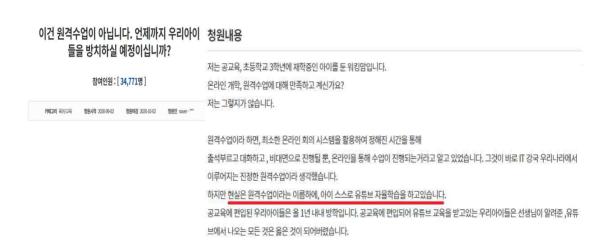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을 하기에 더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더욱 강력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요구받았다.

학생의 타고난 지능과 성취동기 등 학생 개인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기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성인 학습자가 아닌 초중등교육 수준의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교사의 시범과 안내를 통한 연습, 전략지도와 피드백 등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력격차 요인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지적할 때에 우리 교육은 코로나 상황에서 제도·환경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4) 학교·교사 간 격차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은 원격수업에서도 유효하다. 기존의 일상적 학교수업에서는 1년에 한두번의 공개수업을 제외하면 교사의 수업이 학부모에게 노출될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이 언제든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평가되도록 비자발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학교·교사 간 원격수업 역량의 차이가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노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국면에서 교사의 수업 역량과 그것이 학생의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증폭되었다.

원격수업 도입 초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나 기기 숙련도 등의 차이가 완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다. 적응 기가 지난 2020년 2학기 무렵부터는 교사들이 단순히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실시간쌍방향수 업이나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활용 수업 등과 같이 교사 실재감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수업의 형태를 요구받았다. 교육부도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방안(2020.9.15.)에서 '주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수업 및 실시간 조종례'등을 명시적으로 주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별로 쌍방향수업 횟수나 방식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학교별, 교사별로 '복불복'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학부모 여론은 거셌다. 원격수업이 한 학기 이상 지속되는 동안 등교수업을 임시 보완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일부 수업들이 단순히 콘텐츠 URL만 전달하는 데 그치는 실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유튜브 자율학습'으로 회자되며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또한 학교 간 등교수업 일수의 격차도 차이가 컸다. 이탄희국회의원실 (2020.10.7.)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등교수업이 이뤄질 당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수업일수가 사립초는 4.2일로, 국립초 1일, 공립초 1.9일에 비해 2~4배 이상 많았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학생수의 3분의 1만 등교시키는 밀집도 기준이 적용된 뒤 일부 사립초에서는 '긴급돌봄'형태로 나머지 3분의 2 학생들을 전원 등교 시켜국공립초가 전체 학생 가운데 5~7%에게 오전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립초는 14~15%의 학생들에게 진행하였다. 사립초와 국공립초 간등교수업 일수의 현격한 양적 차이는 원격수업의 질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등교수업이 짧은 주기로 촘촘히 이루어질수록 등교하지 않는 날 원격수업도 등교수업과 연계되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사립초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국제학교 등 학비가 높은 학교들이 국공립학교나 일반고와는 달리 실시간 쌍방향수업의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점이 맘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학교 간 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III. 코로나 학력격차 해소정책의 실효성

1. 등교수업 확대

작년 5월말 교육부는 등교 우선학년을 선정 시 고학년일수록 더 잦은 등교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해 개인 위생수칙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급학교 진학이 급한 고3과 중3 중심으로 매일 등교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초등 저학년 등 보호자의 도움 없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렵고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 효과가 큰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 나가지 못한 채 가정에서 큰 홍역을 치른 것은 물론, 입시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교육행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행히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올해 초등 저학년 매일등교 조치가 추진되었지만,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체의 8.4%로 12학급 중 한학급일 정도로 상당하고 현행 학교의 공간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할 때모든 학년의 정상등교 조치는 어려웠다.

	초	중	ī	초중고
학급수	4,068학급	10,391학급	5,169학급	19,628학급
비율	3.3%	19.9%	9.0%	8.4%

^{*}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2020년 기준)

다행히 최근에는 학력격차 대응책으로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수업 확대 추진을 발표(2021.6.2.)했다. 이를 위해 초등, 고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교일이 적었던 수도권 중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등교 확대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역지침의 준수 하에 등교일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는 무척 시급하고 필요하며 중요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등교 확대조치는 1년 넘게 누적된 이미 발생한 학력격차가 더 악화일로를 걷지 않게 하기 위한 봉합적 보완 방안이지, 학력격차의 근본적해소 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대도시보다 등교일수가 많았던 읍면 지역은 여전히 예년처럼 대도시보다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결과는 등교 자체로 현재 발생한 학력격차가 해소될 거라는 전망은 지나친 낙관임을 방증한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2021.6.)

○ (1수준) 중학교 국어, 수학에서 **읍면지역**의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높음 ※ 단,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모든 교과는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지역규모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	< 지역규모	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
--------------------------------	--------	-------------	--------------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연도	대도시	읍면										
'19	3.8	4.9	10.3	15.2	3.4	3.6	3.9	3.1	7.6	9.3	3.6	3.0
19	(0.43)	(0.65)	(0.76)	(1.18)	(0.44)	(0.53)	(0.58)	(0.89)	(0.81)	(1.69)	(0.58)	(0.77)
'20	5.4	9.6	11.2	18.5	6.1	9.5	7.9	6.6	13.7	13.7	9.6	8.1
20	(0.58)	(1.52)	(0.86)	(1.78)	(0.68)	(1.48)	(0.88)	(1.23)	(1.04)	(1.95)	(1.05)	(1.30)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면등교 조치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학습결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장·단기 대책인데, 이는 평시의 기초학력부진학생 대상의 지원정책과는 달라야 한다. 평시에도 상존했던 학습격차와 등교수업의 공백으로 발생한 학습결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학습결손의 대상자는 모든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격차는 단지 기초학력미달 학생에만 국한되는 문제

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등교수업 확대 조치만큼이나 모든 학생들이 경험한 그간의 학습결손을 어떻게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후속계획은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에 중요한 킹핀이 될 것이다.

2. 실시간쌍방향수업 확대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방안'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주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수업 등을 권고하였다. 외부 제작 콘텐츠만 제공한 채 후속 피드백이나 개별 학생과의 소통 등 수업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내놓은 수업개선 방책이었다. 그러나 특정한 수업의 형태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학력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수업의 내실과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는 근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수업의 형태는 교과나 수업내용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 특정한 수업의 형태가 교사-학생 간 소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학급당 20~30명의 학생들과 실시간쌍방향수업을 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이크는 OFF 상태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없는 실시간 일방향수업이 되기 쉽다. 실시간성이 오히려 쌍방향성을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또한 성인들도 1시간 이상 실시간쌍방향수업이 소통 강화를 위한 해답으로 강구되는 것은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

원격수업에서의 소통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체감도의 차이는 교육부가 초중고 교사 75만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0.10~11월)에서도 명실히 드러났다.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해 주1~2회라는 응답이교사 54.0%인지만, 학생은 38.4%에 불과하고, 주5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교사는 20.3%, 학부모는 5.4%에 불과하다. 원격수업에서의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 주체 간의 합의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학생·학부모는 단순히 출결이나 진도율 체크 이상으로 수업 전후나 수업에서의 동기부여나, 학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제 피드백 등 개별화된 학습적 소통을 원한 것이다. 이러한 원격수업 에서의 소통은 단순히 수업 진행 상황에서 쌍방향 매체를 활용하는 것 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격수업에서의 소통은 학생의 발달 연령이나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시간과 전후에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수업 방법적 차원의 전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채 수업의 매체만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학생에게 소통으로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 전달 위주의 실시간쌍방향수업보다 외부 콘텐츠 활용 수업 이후 게시판 댓글토론과 피드백 수업이 소통의 양과 질에서보다 나은 수업일 수도 있다. 원격수업 상황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실시간성보다 '쌍방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면수업과는 달리 고립된 원격수업 학습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학생 간, 교사학생 간의 쌍방향적 연결성을 구현해낼 것인지, 학교급, 학년, 교과,단원 등의 맥락에서 원격수업 소통 구현 방안에 대한 다각적 현장 연구가후속될 필요가 있다.

3. 교강사 추가인력 확보

교육부는 올해 1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확대 추진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기간제교사 2,239명을 추가채용하고 협력수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은주국회의원실이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분반을 위해 투입한 교원은 10.2%(229명)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충북·경남 등 7개 지역은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투입한교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인력이 지원되더라도 그 인력이 투입될 교실이

부족하고 밀집도가 과포화라서 1교실 2교사 방식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임시 인력의 경우 언제 그만둘지 몰라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역할 부여가 어렵고인력에 대한 관리 부담만 늘어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처럼 학교신설이나 교실증설, 학급증축 등 하드웨어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단순히 임시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학력격차 완화라는 정책적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예비교원, 대학생, 퇴직교원, 협력교사 등 학력결손의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추가인력 공급정책도 고용인력의 불안정성,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낙인의 문제, 모호하고 불명확한 역할, 기초학력 지원역량과 전문성 등의 문제로 땜질 수급이라는 교육현장의 비판을 고려할 때,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기초학력 결손의 경우 전문적 진단도구를활용하여 처방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통해 조기에 장기간 강도 높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시 인력의 일시적 지원으로는 실효를 거두기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직교사 보조 수준의 임시 인력이아닌, 보다 안정적 고용 형태의 전문적 전담인력을 전폭 보강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학력결손을 보완하고, 결손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IV. 코로나 학력격차 개선방안

1. 지역과 학교 실정에 기반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코로나 변수가 학력의 변화에 어느 정도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 작업은 학력격차 보완을 위한 적확한 처방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표준화 평가는 지난 2017년부터 3% 표본조사

로 전환되어 중3, 고2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로 시행하게 된 경위에는 평가 결과를 놓고 지역이나 학교 간 서열화가 양산되고, 학교 현장에서 선다형 문항풀이를 위한 비교육적 대비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평가는교육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학력 동향 파악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고, 개별 학생이나 학교 단위의 진단은 학교에서 자율적 방법으로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단위 학교 자율에 맡겨진 개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에 대해 학부모 신뢰도가 충분치 않고,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적 처방이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도달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박홍근, 강득구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어 기초학력보장정책의 법적 기반도 아직 미약하다. 학교교육과정은 이전 학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기초학력이 갖춰져있지 않을 경우 학습결손은 지속적으로 누적·심화되어학습을 포기하는 학생(학포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력격차 예방의 첫 단추는 각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학교 간 상당한 교육 여건과 같은 출발선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 같은 표준화 검사로 일률적으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측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에서 마주한 지역과 학교 현장의 무수한 변수들은 기초학력 진단과 대책 수립에서도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실정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가 보장해야할 충분한 교육은 어느 정도인지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측정 방법과 보정 도구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진단・보정 도구를 수업과 연계하여 교사들이 이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원연수 지원

이 필요하며, 교육청은 해당 지역 학교들의 진단·보정 현황을 관리하는 등 기초학력에 대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2. 문제풀이식 기초학력 진단·보정 방식을 개편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서는 학년·수준별로 진단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 문제풀이방식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사 문항 유형을 반복 풀이하면 자칫개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풀이 기술만 익혀버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자모음의 음가를 모르는 것인지, 난독증인지, 유창성의 문제인지 면밀히 진단되지 않은 채 반복적 문제풀이로 문제 자체를 학습해버리면 잘 푸는 것으로 넘어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데이터는 누적되지 않은 채 1년 단위로 삭제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정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학력이 미달되었다고 결과상 진단은 가능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학습의 결손이 발생했는지를 추적관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초4 수학에서 분수 계산이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이전에 몇 학년 과정에서 학습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시스템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단순히 정답만 맞추면 되는 선다형 문제풀이방식이 아니라, 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계별 서·논술형 문항 및 구술형 등 다각적 진단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학력이 연속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진단 이력을 다년간 누적하고 상급학년 교사에 승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한다.

3. 학습결손에 대한 방학·방과후 보충교육

코로나 학력격차에는 등교수업의 결손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초학력 미달 지원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보충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수업과 더불어원격수업이 병행되기는 했지만,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의 임시적 대체재로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등교수업에 비해 학습 효과가 제한적인 내용도상당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도달할수 있었을 자신의 학업적 성취에 비해 못 미쳤을 학습적 손실은 단지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만이 아닌,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경험한 학습적 손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력격차의 단기 대책으로 학기중 방과후 및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기 진행했던 원격수업을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방식의오프라인 보충교육이 필요하다. 만약 단위학교여건상 개설이 여의치 않을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교·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권역·거점별 학교에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학습결손상태가 답보된 채 배움의 단절이 지속적으로 적체되거나, 이를 사교육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개별화 수업 체제 도입

이미 발생한 학력격차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격차의 발생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학력격차의 근본적 해소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 자체가 기존과 같이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을 전달하고 한 줄 세우는 획일적 평가방식에서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 원격수업에서도 학교교육은 오프 라인 수업과 같이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똑같은 개수의 강의와 과제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개별적인 학습 수준이나 속도가 고려되지 않으면 학습격차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 려면 현장 교사들이 개별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속도를 고려하여 강의나 과제의 종류나 개수를 차등적으로 증감·조절 편성하는 개별화 수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별 발달단계와 학습 흥미도나 관심, 동기나 사전 배경지식 등 학습 준비도와 배우는 속도 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고, 개별 학생별로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된다면 근본적으로 학력격차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거니와, 발생 하더라도 체감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이 실천되려면 교사 수준에서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보다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어진 국가교육과정 탓에 과도하게 많은 학습량은 빠른 속도로 나가는 진도빼기 수업 및 학습결손 가중을 초래 했다. 이는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내용의 난이도가 올라가 면서 더욱 심한 학력격차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려면 국가가 핵심 성취기준을 선별해주고, 그 이외에는 교사가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전폭적 권한 이양이 요구된다.

코로나 학습격차로 중위권이 꺼진 현상은 더 이상 다수의 중위권을 타겟팅한 획일적 수업이 유효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들의 다양성이 세심하게 고려되는 수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함의한다. 이러한 개별화 수업을 통해 자신의 옆에 있는 학생과의 격차 대신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더 성장해야 할 수준을 비교하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차이가 주목되면서 학습격차는 점진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5. 수업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

일 년 넘게 지속되어온 원격수업의 현장경험이 전면 등교수업으로 휘발 되거나 소실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격수업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 학교교육이 작동하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와 학교교육의 참여 주체를 대폭 확대시켰다. 향후 등교수업이 확대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기 경험한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는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교사·학교 간 원격수업의 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다수의 교원단체들이 필요성을 역설한 것처럼 학급당 학생수경감을 위한 재정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절대적인 목표수치를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기 과제로 먼저 학교 간의 학급당 학생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 간 적정한 학생 수 분산이 우선 추진될 수있겠다. 일례로 올해 전교생 400명 미만의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수는 이례적으로 19% 증가(일반초는 1% 감소)1)했다고 한다. 이러한결과는 재난 상황에서도 일상적 거리두기가 가능할 정도의 작은 학급,작은 규모의 밀집도가 낮은 학교 모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학력격차는 결국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마련될 때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줄어든 교육부·교육청의 목적사업을 예외적 조치가 아닌 일상화해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연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문 개수상한제 등을 도입해서라도 공문 감축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들의 수업연구회 활동의 지원 문턱을 충분히 낮춰주어야 한다. 더불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까지 확대된 수업 환경에서 교사들의 업무 시간이 과중해 소진되지 않도록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¹⁾ 연합뉴스(2021.3.18.기사)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19%↑…거리두기 적합해 인기 상승

V. 나오며

교육계에서 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발생한 격차 앞에 '코로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기존에도 존재해왔던 격차가 수면 위로 명징하게 떠오른 것일 뿐이라는 안일한시각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격차는 구태의연한 문제이겠으나, 격차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구태를 답습하는 패착을 두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격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애써 새삼스러워야 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격차는 상대적이고 인식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왔다. 학력격차를 계속 그렇게 단지 공부를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와의 비교에서 체감되는 불평등의 현상으로 보게되면, 학력격차를 줄이는 일은 단순해진다. 학생 간 상대적 점수 차이만 줄이면 된다. 목표 점수를 낮추든, 못 하는 아이만 잘 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나 금번에 조명된 코로나 학력격차 문제는 격차를 바라보는 상대적 통념의시각을 넘어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교교육의 절대적 역할을 요구하고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의 결과적 맥락에서 상대적 비교를 넘어서,교육의 기회와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충분히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이다. 코로나 학력격차가 외현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숫자의 이면에는 배움의 장에서 아이들이보내는 긴박한 시그널이 명멸하고 있다. 지금은 머지않아 소멸될 이신호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조명해낼 때다.

참고문헌

BBC NEWS, 코로나19: 달라지는 아이들... '잃어버린 세대'될까?(2020.6.7.)

김병성(1996)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 결정요인과 연구 과제 - 학력격차와 접근방향-경기도교육연구원(2020), 코로나19와 교육: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2021), 코로나19와 교육: 원격수업 내실화 제언

경향신문(2021.4.13.기사) [기초학력도 인권이다(상)]'284X44'에 "멘털이 나가려해요"... 민주연구원(2021), 코로나발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미국의 코로나19 학습손실 측정 데이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변진경, 학교를 왜 가야 하나 답해야 하는 시간, 시사인 기사(2020.6.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7.7.) 코로나發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교육격차'문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보완대책 기자회견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9.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서길주(2003) 피드백 유형이 학습 양식에 따라 수학과 내적 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 이슈페이퍼(2021년 제1호)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교육격차에 따른 각국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과 서울교육에의 시사점

연합뉴스(2021.3.18.기사)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19%↑…거리두기 적합해 인기 상승한겨레(2021.1.19.칼럼) 경쟁에 감염된 학교 이야기, 코로나 이후 새롭게 써야

-	32	-
---	----	---

정책토론

(가나다 순)

- 고유빈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 최미자 (대전둔산초등학교 교감)
- 최애리 (학부모)

- 34 -	
--------	--

토론자료 1

코로나19 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시업 현황 및 정책 방향

고유빈 1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목 차

- Ⅰ. 여는 글
- Ⅱ.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에 대한 소고
- Ⅲ.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현황
- Ⅳ.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의 방향 및 정책 제언
- V. 맺음말

I. 여는 글

지난 6월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하고, 1수준(기초학력 미달)의 경우는 증가하였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만은 아니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팬데믹 상황으로다양한 형태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초반에 예정되어 있던 전국단위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Prograss)평가 역시 1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의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가정 내 인터넷 환경이 불안하여원격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극 관여할 수 없는 가정 내 여러 상황도 학생의 학습 손실을 더욱 심화시키는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학습 시간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손실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내나다의 경우도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주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추가 교원 또는 개별학습지원을 위한 전문 교사를 고용하거나교육과정 압축 작업, 교육과정 운영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부분부터먼저 가르치는 것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3). 일본의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교하면서 교내 ICT 환경이 제대로정비되지 않아서, 원격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2021년도에는원격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4)

영국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 및 학습자료의 격차가 거론되고 있다. 원격 가정학습시 부모의 학습 관여도 또한 공교육격차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의 불균형 등 학습 환경도 교육격차 확대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이에 영국에서는 CUP(Catch-up Premium)정책을 마련하여 약 10억 파운드(약1조 5천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3억 5천만 파운드는 빈곤 가정 자녀를위한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National Tutoring Programme)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격차가 분명한학생들을 구별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과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5)

²⁾ 미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24.)

³⁾ 캐나다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24.)

⁴⁾ 일본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24.)

^{5) [}영국] 팬데믹과 교육격차, 잉글랜드의 대처법(한국교육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17.)

세계 각국에서도 이렇듯, 코로나19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학습결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코로나19학력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그 시사점이 매우 크고 의미있는 일이다. 이 자리를 빌어 구본환 의장님과 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신소영 정책팀장님이 코로나19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제안해주심에 감사 드린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한대전 기초학력 향상 지원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코로나19 학력격차에 대한 소고

1. 교육격차와 학력격차 그리고 기초학력

가. 교육격차와 학력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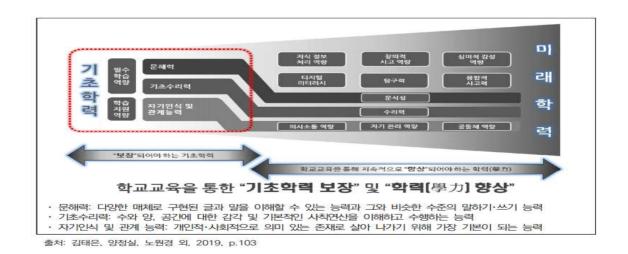
교육격차는 사회 및 학교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그 기능적 측면에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관점이다. 투입요건으로서 기회균등의 격차, 교육 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상의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는 교육효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거시적개념이다. 학력격차는 교육격차의 미시적 관점으로 수업자와 학습자의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양적·질적 변화에서 제기되는 격차를 말한다. (김병성, 2003).

나. 기초학력

'기초학력'은 원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표기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학문적 의미의 '학습부진학생', 객관적 수치에 의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법안에서 제시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기준 부재로 기초학력의 개념과 지원대상에 대한 모호성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해져 가는 다원화 사회에서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교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능력들(사회적 지능, 컴퓨팅 사고력, 지능 정보 처리 능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견주어 볼 때 기초학력의 개념이 기초학습(읽기, 쓰기, 셈하기)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 기초학력의 개념은, 삶을 영위하고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학습력(배울 수 있는 힘)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해력, 기초수리력, 자기인식 및 관계 능력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6)

'학력은 소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가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의 지도 방법과 투입된 시간의 양을 달리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배움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기초학력(삶을 영위하고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데 기반이 되는 배울 수 있는힘)만 잘 갖춰있다면, 언제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밑바탕이 되어,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6)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광의의 기초학력 개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7.31.)

⁷⁾ 성열관외, 2016:87

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범위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학습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과 낙인효과를 불러온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되고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범위에서,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계 선상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여력과 여건상의 문제, 문제학생 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의 문제, 문제학생만을 위한 개별화 지도, 지원 의 문제 등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①항에 따르면, 학습부진아에 대해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3%이다. 반면 미국은 7%, 캐나다는 10.8%, 덴마크는 13%,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예로 드는 핀란드는 17.1%이다. OECD평균은 약 6%정도 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상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60%정도가 학습장애나의사소통장애다.8)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축소된 반면, 학습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더 많은 대상이 포함되어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이 불 가하다. 이는 법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시, 학교의 재량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⁸⁾ 기초학력 미달 대처의 새 패러다임(박남기, 한국일보 2019. 10. 1.)

2. 기초학력 진단-보정

앞서 코로나19 학력격차 개선 방안으로 지역과 학교 실정에 기반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및 문제풀이식 기초학력 진단 보정 방식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측정 방법과 보정 도구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진 개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에 대해 학부모 신뢰도가 충분치 않다고 하였는데,

현재,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에서 운영중인 배·이·스 캠 프⁹⁾에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기초적인 학습 내용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 내용은 초1~고1을 대상으로 3R's와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교과 중심으로 영역별 세부진단 및 보정자료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과목별, 세부 내용별 진단 이 가능하며, 보정지도를 할 수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데이터 가 누적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누적관리로 인한 낙인효과 문 제가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누적관리는 지금도 가능 하나, 개인정보,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지표로 사용하는 문제의 해결 등 사회적 합의 및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누적관리가 가능하다. 현재도 다 음 학년도 준비를 위한 리셋 전에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 문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배이스 캠프에서는 문항별 학습반응 데이 터도 확보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지원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계별 서논술 형 문항 및 구술형 등 다각적 진단 방식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제 안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학교의 희망 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량 중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i성취)'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¹⁰⁾ 실제 맥락 에서의 문제해결력 등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평가

⁹⁾ http://www.plasedu.org/plas/,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¹⁰⁾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Computer Based Test)를 도입(2022.9.~)하여, 기술공학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문항 유형¹¹⁾을 제공하는 교과별 성취수준 등의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상세 정보(예시) 】

혀재

-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
- 교과역량별 성취율
- 교과별 정의적 특성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신규 제공(2022년 ~)

- •사회적 역량[공동체 의식, 협업, 갈등해결] ('22년~)
- •정서적 역량[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 ('22년~)
- 진로성숙도[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23년~)
- 자기조절학습[자기효능감, 행동통제, 학습전략] ('23년~)
-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접근] ('23년~)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원하는 평가 시기 및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평가 시기가 다르고, 시험볼 때마다 시험문제는 다를 수 있으나, 시험문항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동등화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문제이므로, 신뢰도가 확보된 평가이다. 이를 위해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학년(초3~고2)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12)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초3·4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2단계(1·2 수준)로 결과가 산출되며 시험지 형태로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구성('24년~)

^{11) (}문항 예시)▲정보활용형, ▲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

¹²⁾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3.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한 신규사업, 대체사업에 대한 고민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2021학년도에 새롭게 '온 라인 튜터'사업이 신설되었다. 튜터 배치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기초학력 보충지도, 상담 등 집중 지원을 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하자 는 긍정적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튜터 선발, 관리, 운영 등을 모두 학교 업무 담당교사가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다. 학교와 학생을 지 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초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에, 학 교에서는 튜터가 있을 공간, 책상, 컴퓨터 등 업무 기자재 지원 등 준비 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선발에 있어서도 지원자가 적고, 선발해도 낮 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채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 재채용의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고용의 불안정성은 기초학력 지원에 있어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안정된 지원으로 연결 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등 기초학력 지원사업과도 중복되는 면이 있어, 학생 선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의 적용이 불가하다.

현재 학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출결, 방역, 원격수업 자료 제작 등 대면과 온라인 수업 병행 자체만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전 대비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온라인 튜터처럼 신규사업을 담당하게 된 업무담당교사는 새로운 직종(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확대되어, 수업과 학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수업전문가인 정규교사가 수업과 기초학력지원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불안감과 분위기에 휩쓸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대책에 대한 신규사업과 대체사업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그것에 의해 새로운 사업 등이 생성되면, 그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인 학교가 가장 어려워진다. 지금은 학교를 어렵게 할 때가 아니라, 학교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에 대한 신규사업 또는 대체사업, 새로운 협의체 구성 등으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학교를 더 어렵게 하기보다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체제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Ⅲ.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현황

1. 대전 **모·아·함·성** 기초학력 보장 프로젝트

우리교육청에서는 대전 모·아·함·성 기초학력 보장 프로젝트를 연초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아·함·성은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기' 를 뜻하는 말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포함하여 배움과 성장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대전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젝트를 말한다.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내실화, 교과학습 지원강화, 학교 구성원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의 총 3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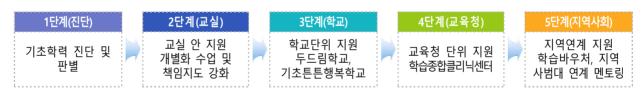
구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개요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내실화	① 학습지원대상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대상: 초·중·고
	②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내실화	대상: 초3~고1
	③ 두드림학교 운영 내실화	총 54교(초 34교, 중 20교)
	④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 내실화	총 182교(초 114교, 중 68교)
	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내실화	3개 센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과 학습 지원 강화	⑥ 교실 안 개별화수업 강화	대상: 초·중·고
	⑦ 기초학력 향상 연구・선도학교 운영	총 5교(초 4교, 중 1교)
	⑧ 기초학력 향상 교과지도 프로그램 강화	대상: 초·중·고
	⑨ 교과학습 멘토링 지원 강화	대상: 초·중·고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⑩ 기초학력 향상 지도 역량 강화 워크숍	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사
	① 기초학력 항상 직무연수 및 홍보·일반화	교원, 학부모, 학습상담사(코칭단: 자율)
	① 기초학력 향상 · 두드림학교 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별 운영

< 대전 모아함성 기초학력 보장 프로젝트 주요사업 내용>

2. 기초학력 향상 5단계 촘촘(CHOM CHOM) 학습지원망 구축 및 운영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연계 운영을 포함하여 기초학력 향상 5단계 촘촘 학습지원망을 구축하였다. 대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 5단계 촘촘(CHOM CHOM) 학습 지원망'을 구축하는 주 이유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단편적 접근보다는 학생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고, 아울러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마음관리가선행되어야 학습지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촘촘(CHOM CHOM)은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음'을 뜻하는 우리말로 기초학력 보장에 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CHOM CHOM의 이니셜은 C(Comprehension: 학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 H(Hold hands: 손잡아 주고 지지해주기), O(Opportunity: 지속적인 성공 기회 제공하기), M(Move up: 학습동기, 자신감, 학력의 향상으로 이끌기)의 뜻으로 학습지원 학생에 대한 지원 접근 방향과 목적을 담고 있다.



< 기초학력 향상 5단계 촘촘(CHOM CHOM) 학습 지원망>

가. [1단계] 기초학력 진단 및 판별

1단계에서는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사관찰평가 등을 활용하여 진단한 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판별한다.

나. [2단계] 교실 안 지원

2단계에서는 정규 수업안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개별화 수업을 강화하고 있다. 개별화 수업 구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연구과제로 부여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과목별 개별화 수업 모형 개발과 일반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다. [3단계] 학교 단위 지원

3단계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협력적 프로그램이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 두드림학교(54교), 기초튼튼행복학교(18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역량강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44교에서 학력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4단계] 교육청 단위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블 렌디드 학습상담 및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다.

마. [5단계] 지역 연계 지원

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와 연계하여 배·이·스 캠프 (http://www.plasedu.org/)를 활용한 학습자료 및 학습관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심리 상담 전문 치료기관(의료기관 3곳, 상담기관 10곳)과 연계하여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심층적 지원을 하고 있다.

Ⅳ.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의 방향 및 정책 제언

1. 개별화 수업 강화를 통한 교실 안 수업 내실화

개별화 수업이란, 학습자의 흥미, 학습유형, 준비도에 따라 학습의 내용, 이해과정, 학습 결과물을 다양하게 달리하는 것으로 대표적 수업모형으로 'GRR수업 모형'이 있다. GRR은 점진적 책임 이양, Gradual Release of Responsibility의 약자이고, 학습의 책임(의사결정권, 선택권)을 교사 주도에서 학생 주도로 점진적으로 옮겨감으로써,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로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을 말한다.

기존의 기초학력향상 지원의 초점은 정규수업보다는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개별화 수업을 강조

하는 이유는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참여하는 정규 수업에서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습결손의 시발점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대전 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개별화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학습연 구년제 연구과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개별화 수업 모델 및 지도안 개 발 등 개별화 수업 활성화 및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력격차의 단기 대책으로 방과후 및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기 중 내용을 집중복습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보충교육을 제안하였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별도 보충 지도하는 경우, 밀집도기준에서 제외하여 대면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및 방학중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들에게 교과지도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대면지도형, 혼합지도형, 온라인 지도형 등을 제시하여 학교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과학습 멘토링도 사제간, 학생간, 대학생 교육봉사 멘토링, 교육실습생 연계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방학중이 아닌 일과중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원격수업 내실화

학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통해 변화와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던 원격수업을 체계적인 준비 없이 바로 학교 현장으로 불러들였다. 단순히, 원격수업의 실시간 쌍방향성 보다는 소통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원격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교사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재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원격수업 역량 함양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 원격수업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의 상호작용 중심 원격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 지원을 위해 4월에 '40분 뚝딱! 실시간 쌍 방향 소통 수업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급별 원격수업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3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7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학교 요청에 따라 앙코로 특강을 6월에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코칭'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을 신청 학교 38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찾아가는 연수, 교원 대상 직무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한 수업 앙상블 특강 및 수업공감성장연수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협력적 수업 연구 모임인 교사학습공동체 235팀을 지원하고, 등교수업원격수업 연계 강화를 위한 2020년에 블렌디드 수업 모형을 개발·보급하여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는 학생 수준을 고려한 학습내용을 포함한 블렌디드 교수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활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2020년까지 스마트기기를 16,445대를 보급하였으며 6,084대의 스마트패드를 무상 대여하고, 초중고 전 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학교 무선망을확대하여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학습동기 강화 및 심리·정서적 지원

대전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상담 및 코칭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초학력 지원센터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찾아가는 학습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온라인 학습상담을 운영하여, 177교 2,134명 학

생이 참여하였다. 이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언제 어디서든 지원할 수 있는 블렌디드(온-오프라인) 학습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교 수	77	41	25	142
학생 수	277	168	131	576

< 2021년 블렌디드 학습상담 추진 현황(5.31.기준)>

또한,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심층적 지원을 위한 전문 심리 치료 기관과 연계한 학습 바우처를 제공하여, ADHD,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코칭 및 학습바우처 제공 등의 지원을 중위권학생까지확대·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신장 지도를 위해선 무엇보다 센터 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전시교육청은 센터 요원의 실제적인 학습상담 및 코칭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칭 대상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연 7회 실시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학부모 학습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학 중에는 학습 캠프를 운영하여 학습 공백이 없도록 학습상담 및 코칭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2학기에는 자신의 학습 성향을 알수 있는 「학습표준화검사」와 「해석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1~2회에 걸친 단기적 프로그램인 「학습표준화검사」는 학교 상황에 따라 'MLST-II 학습전략검사'와 'U&I 학습유형검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 후 「해석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율성과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학습 능력이자 학습 전략인 메타인지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4. 학급당 학생수 인원 감축에 따른 정규교사 인력확충

갈수록 학교의 행정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전상황보다 학교의 업무가 더욱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풍선 효과처럼 학교의 행정업무증가는 다른 쪽, 즉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집중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영으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정규교사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이 되면, 담임교사는 우리 반 아이 하나하나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돌아볼 여력이 생기며, 교과교사도 학생에 맞는 개별화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교실 내 두 선생님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1수업 2교사제, 임금과 신분이 불안정한 온라인 튜터등보조 인력의 지원과 같은 임시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부진의 원인은 학습결손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지원을 위해서는 두드림학교의 두드림팀 구성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병원에서 환자 한 명을 놓고 여러 분야 전문의가논의하고, 종합적 진단과 처방을 하듯, 학교에서도 그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과 학교교육 전문가, 즉 정규교사의 인적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학급당 학생수 인원 감축으로 교실 내 촘촘한 학습지원망 구축 운영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정규교원 확보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5. AI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구축

학습결손 최소화 및 진정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언제 든 궁금한 것을 묻고 학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AI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품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학력은 소수만이 아니

라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의 지도 방법과 투입된 시간의 양을 달리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화 수업이 구현 되어야 하며, 보다 세밀한 개별화수업 구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속도와 문항반응에 따라 맞춤형 개별화지도가 가능한 AI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V. 맺음말

코로나19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도 학습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계에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소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여러 가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가 바라보는 시각은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다년간 개발·적용 되어온 기초학력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특히, '학력은 소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의 관점에서 수업의 지도 방법과 투입된 시간의 양을 달리한다면 누구나 배울수 있다는 관점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현재 배움의 속도가 느리다고해도 기초학력만 잘 갖춰있다면, 언제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밑바탕이 되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및 국가 차원의 AI기반 맞춤형 학습플랫폼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5단계 촘촘 학습지원망을 통해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 미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24.)
- · 캐나다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 럼, 2021. 2. 24.)
- · 일본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24.)
- · [영국] 팬데믹과 교육격차, 잉글랜드의 대처법(한국교육개발원, 월간 교육정책 포럼, 2021. 2. 17.)
- · 김병성, 2003, "교육격차: 의미·배경·인과론", 「교육개발」, 5-6월호
- · 김희삼. 원격교육 상황에서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 방안, 한국교육 개발원, 2020 이슈페이퍼 5호
- · 정주원. 소비격차에 따른 교육격아에 대한 논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8 이슈페이퍼 10호
-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8. 10. 31.)
-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광의의 기초학력 개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7.31.)
- · 성열관, 박휴용, 김정안, 김위정, 박혜경, 유경훈, 강에스더.(2016).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
- · 배이스캠프(http://www.plasedu.org/plas/),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 구소
- · 캐롤 탐린슨(2014), 교실현장에서 가져온 개별화 수업 1, 2(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 이찬승.(2020) 기초학력부진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개별화 지도 Q&A 11,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코로나19 학력격차 해소방안 모색

김 종 남 | 대전YMCA 사무총장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혼란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지만, 이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의 현장은 학교일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 밖을나가지 못하는 소위 갇힌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원격수업이라는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급식과돌봄, 체험 및 문화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학력격차'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실제 실태조사 결과 학력 양극화와 학력저하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학력격차는 공교육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부모와 가정환경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진다. 초등, 중등, 고등 세 아이의 부모로 각자 컴퓨터 1대씩 가지고 방과 거실로 나누어 공간을 분리하고 식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수업 이외의 시간에 대한 대안도 채워 줄 수 없는 환경이다. 오히려 온라인 수업으로 미디어에 대한 노출로 게임 등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수업을 따라가기에도 박차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으로 학원에 보내게 되었다. 평소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진로에 대한 불안, 학업에 대한 불안 등 컨설팅과 진로에 대한 친절한 상담이 있는 사교육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 전면등교를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 등으로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간의 쌍방향 수업을 권고하였고, 일선 학교에서는 1교시 온라인 수업이외에 조례와 종례를 쌍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늘려가고있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목표로 단계별 등교수업 확대를추진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항상컴퓨터 모니터를 하루종일 보며 과제도 많아 차라리 전면등교를 희망하고 있다. 학교 기자재 지원은 많아졌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학교 컴퓨터실의 장비가 실제 부족한 학교도 있고, 실제 등교를 해도수업시간 단축은 물론 쉬는 시간이 없는 곳도 있다.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들의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교육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습격차'라는 키워드를 마케팅으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오히려 학습격차를 이유로 아이들에게 문제풀이식 과제만 증가될까 우려된다. 학력격차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장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학력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등교를 확대 해야한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서비스를 받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면등교는 향후 학력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개인별 상담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맞춤별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교사 등 추가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도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30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의 성과와 평가를 위해 시간내 과제 제출이 일반적이다. 또한 누적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것에 필요한 체험, 문화활동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을도서관, 청소년시설, 마을공동체 등 공교육과 함께 사회적자본을 활용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_	56	_

코로나19와 초등학교 기초학력 지원

최 미 자 I 대전둔산초등학교 교감

I. 코로나19와 함께 한 시간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도 이 감염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로 학습된 것이 있어서 조만간 백신이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 기대가 걱정이 되고, 현실이 되면서 교육계는 코로나 19와의 장기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이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3월, 신학기를 맞이하였는데도 학교는 개학을 하지 못했다. 겨울방학이 봄까지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졌다. 그 당시는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집 안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고 방학이 길어지니, 교사도 학부모도 걱정이 많아졌다. 4월에는 학교마다 온라인으로 개학식도 하고, 우리 반 학생이 가정에서 잘 지내는지, 우리 선생님은 누구신지 궁금증이 많아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로 먼저 만나는 진풍경이 만들어졌다. 선생님들은 하루종일 목이쉬도록 학생과 학부모들과 통화를 하였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만큼은 학교라는 공 간의 익숙함을 주기 위하여 등교 입학식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거 행된 등교 입학식은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기쁨보다 긴장감이 더 컸다. 학생들은 실외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널찍한 운동장에서 학 교와 처음 만났다.

선생님들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난생 처음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식으로 교과서와 학습 준비물을 나누어 주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진 <드라이브 스루 교과서 배부>는 가정에서 교과서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학생을 위한 선생님들의 마음이었다.

갑자기 시작된 원격수업은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차츰 안정화되어가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학급 학생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SNS, SMS 방식을 도입하였다. 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오전에는 원격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를 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원격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교는 더욱 분주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으로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 되고, 방역을 담당하는 인력, 안전한 급식을 도와주는 인력 등 많은 인 력이 배치되었다.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손소독을 해야만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졌다. 각 교실마다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등 방역물품이 구비되었다.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꾸준하게 코로나19 대응 안전교육을 받고 실천이 몸에 배도록 교육하였다. 급식실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유일한 공간으로 방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원격수업 주간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되는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시간 조종례와 쌍방향 수업시간에는 교사들의 당부가 이어졌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학습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은 등교수업 주간에학생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2021년!

학교는 여전히 코로나19와 끝나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만히들여다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격수업 주간에도 학교는 매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등교수업 주간이 되면 학생들은 원격수업 주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학습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의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원격수업 주간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수업도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면서 교사와 학생은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Ⅱ.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구성원들이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던 시기에도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중요한 화두였기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기초학력은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조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건데 초등학교도 학력 저하가 생겼다고 추측할 수는 있다. 이 학력 저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된 원격수업에서 기인한 것인지 우리나라 평가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초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이 다소 증가했다고 한다.

초등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문제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초학습량 부족, 가정 돌봄 부족, 느린 이해 속도, 분노 불안, 학습 동기 속도 등의 원인이 있다. 특히 기초 학습량 부족, 가정 돌봄 부족, 느린 이해 속도가 원인 분포도가 높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환경으로는 '빠른 진단, 담임 교사와의 유대 관계, 학습 관리, 지속적인 프로그램, 성취 경험'등이 중요한 키워드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도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학력 격차라기보다 학습 결손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원격학습에서는 스스로 공부해야하는 환경에서 등교수업 때보다 더 적은 학습량을 해왔고,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정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습에 대한 이해 속도가 더 느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Ⅲ.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2021년 현재「기초학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안 - 학교 안 -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 교실 안에서는

가. 내실있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이제 정착의 단계에 들어섰다. 원활한 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e-학습터를 활용한 원격수업에 학생도 교사도 익숙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실시간 댓글 채팅창을 활용하여 많은 대화를 나눈다. 패들렛이나 팅커벨과 같은 보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습 생산물을 공유하고, 학생들 간의 의견 공유도 이루어진다. 원격수업 공간에서도 피드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을 탄탄하게

2021년 학기 초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교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적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주제발표 자료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학습의 출발점인 한글 문해와 기초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에서 개발 보급한 입학 초기 신입생 지도자료인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3월 한 달 동안 1학년 학생들이 한글과 수학에서 기초적인 감각 을 익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한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저학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인 〈찬찬한글〉과 대전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읽기가 술술되는 비법 상자〉 등의 기초학력진단 보정 자료를 활용하여 진단하고 있고, 음운 인식부터 유창성 훈련까지 맞춤형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난독증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난독증 진단및 치료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 진단, 보정 도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실 안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원격수업에서 결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 수업 기간에 개별 학습결손 맞춤형 보충학습 지도 등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더욱 촘촘하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학교 안에서는

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적용

본교는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학기초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등의 신청을 받았는데 평소에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을 둔 본교는 두드림 학교를 신청하여 대전지역 초등학교 34개교가 운영하는 두드림학교에 선정되었다.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방학중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지도 뿐만 아니라 영어, 미술 등 흥미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멘토링 튜터를 활용하여 학기 중에는 오전에 원격학습지원 학생 관리를, 오후에는 튜터들과 매칭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학습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오후에 튜터별로 매칭된 부진 학생의 경우이미 학급 담임교사가 누적 파악한 학생의 부진 발생 요인과 내용을 참고로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튜터는 학교내 기초학습 부진학생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까지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 관리를 하고 있다. 온라인 튜터들은 담임교사와의 교류로 개별 학생들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자료에 따른 학습 부진의 원인에 따른 기초 학습량 제공, 가정 돌봄의역할, 느린 이해 속도의 안내, 정서적인 안정 등의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과정중심평가를 통한 다양한 수준별 피드백 제공

초등학교는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 결과만이 아닌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반의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교사는 과정중심평가 이후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4지선다형 문제풀이식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 토의토론, 프로젝트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수준별 학생에 맞는 피드백과 재지도가 이루어진다.

3. 학교 밖

가.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Wee 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부모와 학급담임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현재 학습 수준, 학습 결손 부분 등을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실 내에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노력하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과 연계하려고 노력한다. 교사나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나 Wee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습컨설팅, 상담, 코칭,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기관의 학습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블렌디드 학습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재 본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방문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 대전교육청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지원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교육청은 한글과 수학에서 기초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원 연수와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해 주고 있어 학교의 기초학력 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한글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를 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읽기지도 첫걸음, 읽기가 술술, 찬찬한글 익힘책, 온전한 한글날개'등 매년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해 주어읽기부진학생을 진단하고 발음중심지도부터 읽기유창성까지 나아갈 수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본교의 경우 교사들이 이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고,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이나 한글 보충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필요한자료를 찾아 재구성하여 제공하며 지도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의 '초등 기초수학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기초, 심화 과정), '수학클리닉 연수'에도 관심있는 교사들이 참여하여 수학부진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Ⅳ. 학교는 오늘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가 현재진형형인 상황에서 학교는 여전히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 싸우고 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방역과 안전에 주력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오늘도 교사들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 담임

교사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학습은 물론생활지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6학년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원격수업은 작년과 양상이 다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주가 되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은 등교수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평가한다. 부족한 부분은 재지도하고 심화학습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육이 어려움을 겪었고, 상하위권 간의 학습 격차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이 증가했다거나 상위권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빈약하다. 초등학교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중고등학교와는 또 다르게 원격학습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느라 더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역할의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속에서도 맞벌이 자녀들에게는 원격학습 지원을 해주고,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주고, 돌봄교실을 운영하여왔다. 위기의 시대에 학교가 안전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볼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이 함께 진행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역할은 오늘도 교실 안에서, 가정에서, 방과후 교실에서, 온라인 튜터가 있는 상담실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토론자료 4

토론자료

최 애 리 l 학부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존의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학교가 학습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삶의 공간으로의 학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 학교교육방식으로 채택된 원격수업 은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원격수업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글 미 해득, 기초학력 부진학생 증가, 학력 양극화 현상과 학력 저하 현상 등 코로나가 야기하는 교육 격차에 학생 과 학부모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전면적 등교수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학력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악순환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학력격차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회복을 위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학교 방역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 확대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등교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학교 방역이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과 함께 코로 나 종식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예정된 고3 학생의 예방접종 이외에는 많은 학생들은 코로나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302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되어 하루 평균 43.1명꼴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전면등교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작년 4월 각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1대씩 설치하여 학교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천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 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는 학생 등교 시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출입 문만을 개방해 놓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등교 시 거리 두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교 규모간 방역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에 따른 물품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행정업무, 방역을 책임지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방안

1)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의 50% 이하라고 평가한 비율이 49.6%이었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거의 동일하다고 평가한 교사는 1.8%에 불과하였다.

코로나 사태 초기 원격수업의 방식은 일방향 온라인 수업이었으나, 점차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쌍방향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원격수업 역량 차이에서 나타나는 원격수업의 질적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의 수업 준비를 위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및 자료에 대한 지원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한 방안

교육격차 현상은 전 학교급에서 발생하였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상황이 보다 심각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하지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한 것은 나이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교육전문가들은 상위권과 보통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라고 이야기한다. 상위권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위권 학생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학습 습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가 서툰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등교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교사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일정 정도 메워줄 수 있겠지만 원격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부모의 몫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교육과 학부모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한다.

3)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공백과 기초학력 부진학생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을 진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은 자기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평가방안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방과 후 학교, 방학 중 학교 등 다양한 방안이 실시·검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봄 학생 지도, 학습 부진아 지도 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계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가 현장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교육활동 인력지원 확대를 통한 운영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4) 학생들의 수업 준비 및 태도 개선

원격수업의 교육 효과를 위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와 함께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활용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지만, 원격수업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기기에 미숙한 학생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소셜미디어 또는 학급 커뮤니티를 사용한 의사소통에는 활발히 참여하나 온라인 상의 예의를 지키

지 않거나, 상호 비방을 하는 등 디지털 윤리와 책임성은 부족하다.

학부모들은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학습 내용과 무관한 동영상 보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시간 수업 중 채팅창에 비속어나 은어로 도배하거나 이불에 들어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호소한다.

원격수업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윤리교육이반드시 필요하다.

3. 교육 소외계층과 돌봄 공백 가정을 위한 지원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모들은 가정에 남아있는 아이에게 온라인 수업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출근한 경험을 1년이란 긴 기간 동안 이어왔다.

하지만 2021년 1학기부터 교육청의 사업 지원으로 교육 소외계층과 맞벌이 가정 등 학교에서 돌봄 및 원격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원격수업 지원반을 개설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학교에서 강사의 지도 아래 온라인 수업을 듣고, 점심 급식을 먹은 후하교하는 시스템은 가정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없다.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이 몇몇 사업 대상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 기본 생활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식사, 수면시간, 운동 등 기본 생활 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시에 등교해서 교사의 지도를 받고 자연스럽게 생활습관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되었다.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학생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육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 연구회에서 대전지역 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의한 청소년 삶의 변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에 죽을 맛이다 (28.4%), 불안하다(17.4%), 화난다(16.6%), 우울하다(10.3%) 등 부정적인 응답이 72.6%로 긍정적인 응답(25.5%) 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3배가까이 많았다. 대전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강한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정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연계구축을 마련하고,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